

올겨울 눈 많이 온다는데... 도내 주요도로 제설제·모래 구비 실태 살폈더니

# 안 보이네?... 눈 내리면 속수무책 우려

1100도로 진입로·애조로·연북로 등 주요 도로에 전무  
폭설 시 차량 정체·사고 우려 뻔한데 ‘뒷북 행정’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대설·기습 한파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공언했으나, 12월인데도 정작 주요 도로변 상황은 제설제 비치는 물론 제설용 모래주머니조차도 없는 실정으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3일 5·16도로와 1100도로 등 산간도로에 눈이 내려 일부 차량 통제가 이뤄진 가운데, 눈과 비가 섞여 내린 출근길 제주시 동지역 1100도로 입구와 애조로, 연삼로, 연북로 등을 둘러봤지만 제설제 비치는 물론 제설용 모래주머니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제주지방기상청이 제주도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 상황으로 폭설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중순,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단계별 상황판단회의를 가동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체계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놔다. 이를 위해 주요 도로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유니목 등 제설장비 39대(차량 25, 건설기계 14)와 인력 58명(상황실 22, 작업반 36)을 전진 배치하고, 제설 자재 9809t(소금 7097, 염화칼슘 2648, 친환경제설제

64)을 확보해 강설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달랐다. 3일 출근길 일부도로 삼양김소스를 출발해 노형동까지 이어지는 애조로 구간은 물론 폭설시 차량 사고가 빈발하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내려가는 중앙로 길목 어디에도 제설 자재는 물론 모래주머니조차 없었다. 이날 일부 구간 통제가 이뤄진 1100도로 입구를 비롯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연북로, 연삼로까지 둘러봤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1100도로 구간의 ‘신비의 도로’를 지나 오르막 구간에 몇 안 되는 모래주머니가 확인된 게 전부였다. 40대 직장인 A씨(제주시 조천읍)는 “애조로를 통해 노형동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도로변에 제설제함이나 제설용 모래주머니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매년 되풀

이 되지만 눈이 내려 쌓이면 한순간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재난 대응에 대한 ‘뒷북 행정’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눈이 많이 쌓이는 5·16도로와 1100도로를 비롯해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등 지방도 27개 노선에 모래주머니 1800개(개소당 10~20포대)를 적치했다”며 “다만 제설함이나 모래주머니가 얼어붙는 등 활용이 어려워 관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애조로, 연삼로, 연북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해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제설제나 제설용 모래주머니 비치가 아직 안된 상태”라며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점을 비롯해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제설제와 모래주머니를 우선 비치하겠다”고 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산지 대설주의보... 한라산 설경 즐기는 관광객들 제주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3일 눈 쌓인 1100고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겨울을 즐기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0.5cm의 눈이 내렸다. 이로 인해 1100도로 등에선 차량통제가 이뤄졌다. 기상청은 4일 오전까지 눈·비날씨를 예보했다. 강희만기자

## 한라산 수목 1만5700여 그루 표준 관측망 구축 도, 고도 100m 간격 40개 조사구 설치... “생태계 변화 추적 토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수목 1만 5700여 그루의 정밀 좌표를 담은 표준 관측망을 완성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두고 “기후 변화에 따른 한라산 생태계 변화를 장기 추적할 과학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한

라산 방위·고도별 수목 분포조사 보고서(증보판)’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한라산 5개 사면(여리목·성판악·관음사·영실·돈내코 코스)에 고도 100m 간격으로 총 40개 정밀 조사구를 확대 설치한 결과물로 수목 87종 1만5756그루의 정밀 위치 좌표와 흉고 직경(胸高直徑) 자

료가 실렸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2개를 조사구를 차례로 설치했고 이를 토대로 2024년엔 ‘한라산 방위·고도별 수목 분포조사 보고서’ 초판을 펴낸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700~1400m 구간의 방위·고도별 연속 관측망이 구축됨으로써 같은 위치, 같은 나

무를 반복 관찰하며 기후 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체계 단위로 추적 하는 등 국가와 학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참조 사이트가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위성·드론·라이다(LiDAR) 데이터와 결합해 인공지능(AI) 학습용 표준자료로 활용된다. 한라산 전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예측을 고도화하며 산림자원량·탄소흡수량 등을 산출하는 데도 쓰일 전망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도교육청-제주대, 아라월평초·중학교 개교 앞뒤 ‘초·중 복수자격 교원’ 양성 나선다

오는 2027년 3월(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제주형 통합운영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제주대학교가 머리를 맞댔다. 실질적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양성 단계부터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오후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대학교와 ‘2025 하반기 정책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도내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중등 복수자격 교원 확보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교육청과 제주대는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학교급 간 교사수업이 가능한 교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초·중 복수자격 교원 양성체계 마련 ▷초등교육과 학생의 중등 교과 복수전공 확대 ▷통합운영학교 거점 실습학교 지정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해 열린 ‘제주형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초·중등을 하나의 연속적 체계로 묶는 1~9학년 통합 학제 운영 모델이 제안된 바 있다. 통합 학제 도입이 검토될 경우 학교급 간 교사수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복수 자격 교원 확보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IBEC(국제 바칼로레아 교사자격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확대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제주대는 지난해부터 IBEC를 운영해 현재까지 25명이 과정을 이수했으며, 올해는 19명이 수료 과정에 있다. 제주대는 도교육청의 교원 경비 지원을 기반으로 초빙 교수 확보와 행정 인력 구축 등 IBEC 운영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굴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주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 한남사려니오름숲 탐방객 1년 새 3배 ↑ 올 들어 2만7000여 명 찾아... 도외 방문객 비율 75%

서귀포시 남원을 한남사려니오름 숲 탐방객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 “한남사려니오름숲 탐방객이 2만70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방문 성과를 기록했다”며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선정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중 한 곳으로 뽑혔던 한남사려니오름숲은 국내 최남단 산림 생태계 연구의 핵심지로 불린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제주 최대 규모의 삼나무 전시림을 감상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사려니오름의 화산 지형과 숲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한남사

려니오름숲 탐방 프로그램은 올해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도외 방문객 비율은 75%로 집계됐다. 재방문율도 16%에 달했다. 이곳은 산불 조심 기간인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탐방이 통제된다. 전선희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 “70년의 뿌리 100년을 향한 도약”

# 대정정우회 창립 70주년 한마음 대회



대정정우회장 김군학

찬바람에 겨울의 향기가 스며드는 초겨울, 대정정우회가 뜻깊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정출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고향인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친선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대정정우회 창립 70주년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오니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5년 12월 7일(일) 오전 10시(개회식 10:30)

**장소** 제주종합운동장 한라체육관

**주최·주관** 대정정우회 · 대정읍 23개리 향우회

**연락처** 양수진 집행위원장 010-3690-4343  
임영근 사무처장 010-6789-0104

## 대정정우회 회장 김군학

회장단 및 집행부												
■ 역대회장	초대	故 고유근	6대	이군선	11대	김영부	16대	현진수				
	2대	故 이정수	7대	故 김동식	12대	허익선	17대	허현식				
	3대	故 강태현	8대	故 문태수	13대	이창립	18대	송진권				
	4대	故 이동원	9대	故 황대정	14대	김창희						
	5대	故 황승삼	10대	이유근	15대	장태범						
■ 고문	허순철, 이군선, 김원봉, 김원하, 진산옥, 허대훈, 변정일, 이유근, 김영부, 이승수, 허익선, 이창립, 김창희, 장태범, 현진수, 허현식											
	■ 회장		김군학		■ 직전회장		송진권		■ 수석부회장		양수진	
■ 부회장	강동원, 강성인, 강성중, 김정후, 김승중, 김승철, 김양근, 김영배, 김태석, 김형섭, 신은수, 송정훈, 송창권, 양경호, 유진희, 이병철, 이창립, 임희열, 정기범, 정민구, 정재희, 허경중, 허영준, 허병식, 현동수, 홍성운											
	■ 감사		임철용, 문정용		■ 사무처장		임영근		■ 사무처차장		문성보	
■ 총무부	양상철, 송재도		■ 재무부		김병철, 김신덕		■ 체육부		이용남, 백훈철			
	■ 사업부		정성범, 이영은		■ 홍보부		양근식, 정창원		■ 조직부		권성국, 송영철	
■ 여성부	양유순, 김현진		■ 청년부		문형철, 김광훈							

향우회 회장								
■ 가파리	회장 허재훈		■ 상모리(대동)	회장 송호림		■ 안성리	회장 강경부	
	회장 송양우			회장 송호림			회장 김성철	
■ 동일리	회장 송정훈		■ 신도리	회장 양순식		■ 인성리	회장 박용이	
	회장 강명남			회장 정기범			회장 정성백	
■ 무릉2리	회장 홍성운		■ 신도3리	회장 이춘림		■ 하모리	회장 이춘호	
	회장 송경은			회장 송병문				